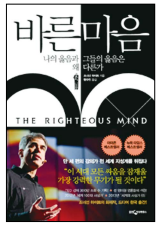


# “진보와 보수, 상대방 악마화해선 안돼...그게 독선 줄이는 길”



“의견이 다른 진보와 보수가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 서로의 ‘바른 마음’을 이해한다면 독선을 줄일 수 있다.”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스톤 경영대학원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2012년 미국에서 <바른 마음>(원제: The Righteous Mind·사진)을 펴내며 미국 국제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뽑은 ‘세계 100대 사상가’에 선정된 바 있다. ‘바른 마음’은 인간의 판단과 집단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도덕’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2008년 테드(TED) 강연에서 이에 기반해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뿌리’를 설명하면서 ‘스타 사상가’로 떠올랐고, 같은 해 미국 대선 당시 보수층의 도덕심을 고려하는 쪽으로 민주당 대선 전략 수정을 권고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 ‘바른 마음’ 저자 조너선 하이트 인터뷰

올해 연구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아시아 6개국을 순회하고 있는 그를 지난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아내는 한국계이고, 나는 유대계로서 양가 모두 아이들에게 헌신적이고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정환경도 비슷해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덕분인지 이번이 첫 방한이지만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적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세대차가 엄청난데, 이는 최근 부를 축적한 아시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전쟁으로 어린 시절 안보와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부모 세대와 번영과 안전을 당연히 여기는 자식 세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한국어판(웅진지식하우스 펴냄)책이 출간되기 닷새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미국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고, 사고 원인과 처리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견해가 나뉘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이트 교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다른 이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논문을 보여주며 “한국의 경우 2004년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와 보수 양진영의 의견 대립이 극심해졌고, 젊은 세대와 50~59살의 견해차가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지금처럼 분위기가 극단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당제 의회 구조에서 점점 벌어지는 정치적 견해차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바른 마음>을 구상한 이유에 대해 “왜 (미국) 민주당이 서민층을 화나게 했는지 도움을 주려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본인이 좌우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당시엔 좌파쪽에 속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끔

찍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의 승리는 세계의 비극으로 변진 재앙이었다. 부시가 싫은 만큼 엘 고어, 존 케리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왜 민주당은 쉽게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기가 막혔다. 민주당 후보는 연설을 하거나 정견을 발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거나 영감을 불

## ‘도덕이 인간 판단·집단행동 결정’ 스타사상가 떠오른 도덕심리학자 한국계 아내 등 가족과 함께 방한

“세월호 참사와 처리과정서 드러난 한국사회 진영간 의견 대립 ‘극심’ 젊은 세대-50대 견해차도 커 더 벌어지면 재앙 불러올 수도”

## ‘진보-보수, 상대 ‘신성모독’ 삼가되 이해와 상호보완 통해 함께 살아야’

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보수파가 인간 도덕성의 5가지 기반인 배려, 공평성, 충성심, 권위, 고귀함 등을 모두 잘 이용하는 데 견제 진보파는 충성심, 권위, 고귀함과 관련된 상대파의 도덕적 기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공화당원은 도덕심리학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민주당원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남북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 자체가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에 쉽게 작용하는 ‘방아쇠’가

된다. 진보주의자는 왜 평화롭게 살 수 없냐고 주장하지만,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대단히 화가 날 만한 주장이 된다.”

하이트 교수는 ‘이성은 정당화의 근거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고 본다. 직관이 전략적 추론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지난해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책 <싸가지 없는 진보>가 ‘이성 중독증’이라며 진보진영의 한계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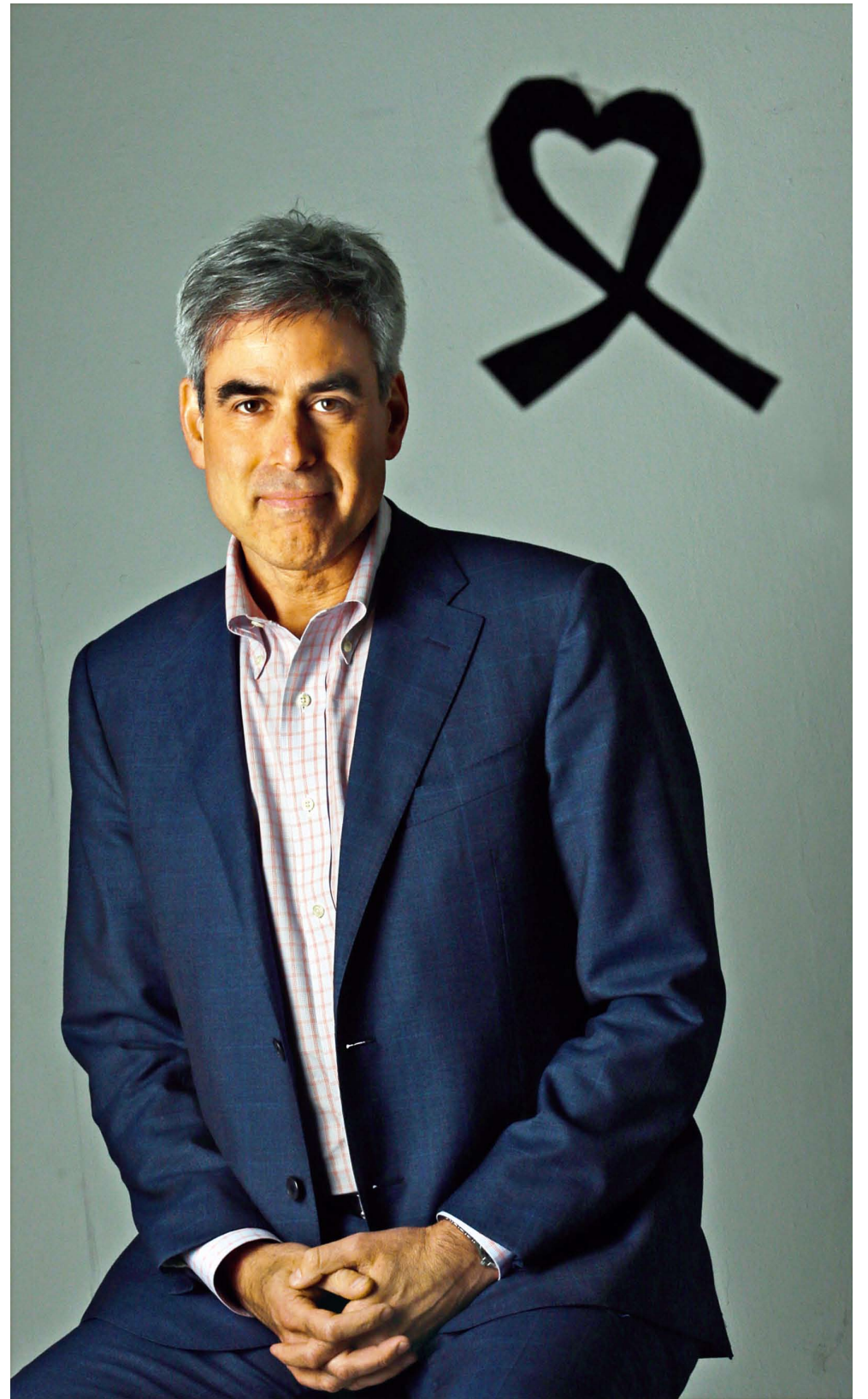
“물론 권위에 대한 도전은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신성 모독’은 삼가야 한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노인 공경과 남북 대치상황은 신성한 가치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개방정책을 하자고 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안심시킨 뒤에 얘기해야 한다.”

최근 그는 자본주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여행길도 미국과 다르게 발전한 독특한 자본주의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017년에는 <자본주의에 관한 세가지 이야기>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자체를 (필요)악이라고 보는 좌파와, 그 반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가 악이라고 보는 우파의 대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착취가 아닌 신뢰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이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을 향해 성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화에 성공한 ‘롤 모델’이고,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한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을 누그러뜨리고 정견을 달리는 형제자매에 대한 이해와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세월호를 상징하는 리본을 배경으로 자세를 잡았다. 그는 “한국 세월호 전복사고 소식을 처음 전해 듣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얘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 전부 리메이크곡으로...밥 딜런, 36번째 앨범

### 담담한 목소리로 재해석된 재즈 스탠더드·스탠더드 팝



살아있는 포크의 전설 밥 딜런(74)이 36번째 스튜디오 앨범 <새도스 인 더 나이트>(사진)를 발표했다. 2012년 발표된 전자 <템페스트> 이후 3년 만이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재즈 스탠더드와 스탠더드 팝들을 재해석한 곡들로 채웠다.

두번째 앨범 <더 프리윌링 밥 딜런>(1963) 수록곡 ‘블로잉 인 더 윈드’를 통해 반전 메시지를 노래하고, 1965년 미국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전기 기타를 들고 나와 관객들의 야유를 받으면서도 포크록이라는 새

지평을 여는 등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그는. 때문에 고전을 리메이크했다는 게 안일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앨범을 듣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도전임을 깨닫게 된다.

첫 곡은 ‘아임 어 폴 투 윈트 유’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만들고 빌리 홀리데이가 불러 큰 사랑을 받은 재즈 스탠더드 곡이다. 밥 딜런은 감정을 절제하며 힘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부른다. 담담한 목소리에서 오히려 세월의 질곡으로 깊게 팬 골이 느껴진다. 30인조 빅밴드 편성으로 힘차고 풍성하게 녹음

된 원곡을 5인조 밴드의 단순한 편곡으로 재해석한 점이 눈에 띈다. 스테이워드 미나 프랑스에서 건넨 노래 ‘오텀 리브스’ 등 상당수 곡에서 손가락에 유리관(보틀넥)을 끼고 기타 지판 위를 미끄러지며 연주하는 주법으로 나른하고 끈적이는 느낌을 준다.

밥 딜런과 연주자들은 헤드폰, 개별 녹음 부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가 한 공간에 들어가 한번이나 두번 만에 녹음을 마쳤다고 한다. 보컬과 각 악기 사운드를 조정하는 믹싱 작업도 녹음된 결과물에 거의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해석하면서도 원곡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사진 소니뮤직 제공

## 실내악으로 깨우는 봄

1000년 고도(古都)의 선율과 함께 남쪽에서 달려오는 봄을 맞아보자. 한국과 폴란드의 고도 서울과 크라쿠프를 토양으로 삼은 연주자들



### 6일 예술의전당 ‘오래된 정원’ 음악회 앙상블 오프스·크라쿠프 듀오 무대에

들의 음악회 ‘오래된 정원’이다. 오는 6일 한국의 실내악그룹 ‘앙상블 오프스’와 폴란드의 ‘크라쿠프 듀오(사진)’가 서울 예술의전당 아이비케이(IBK)챔버홀 무대에 오른다.

앙상블 오프스는 세계적인 현대작곡가 펜데레츠키가 인정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앙상블 오프스 리더)과 김다미,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으로 구성됐다. 2001년에 결성한 크라쿠프 듀오는 크라쿠프 음악원 출신인 첼리스트 안 칼리노프스키와 피아니스트 마렉 스투저로 꾸려졌다. 이들은 고전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명성 있는 레이블 독스(DUX)

등에서 레코딩을 했다. ‘라 클레프 드 레뮤지카’(La Clef de ResMusica) 등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앙상블 오프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류재준의 신곡 ‘클라리넷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오중주’를 세계 초연한다. 류재준은 앙상블 오프스의 예술감독이기도 하다. 크라쿠프 듀오는 폴란드 작곡가 마르셀 슈친스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별인사’를 통해 오래된 도시 크라쿠프의 감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크라쿠프 듀오는 가장 완벽한 실내악곡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다장조’를 앙상블 오프스와 함께 연주한다. 1544-5142.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사진 오프스 제공

## 일제 날치기 조사 94년만에...

## 경주 금관총 공식 재발굴

“신라고분릉주 신이시여! 발굴조사 기간 하늘과 땅은 고요하고, ...님들의 위대한 자취가 만방에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게 굽어 살펴 주옵소서!”

봄기운 가득한 신라고분의 둔덕, 그 위에 터박은 느티나무 거목 앞에서 제관이 기원문을 읽는다. 2일 낮 경주 노서동 고분공원에서 금관총 발굴 성공기원 고우제가 열렸다. 성덕대왕 신종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다 른 제관들이 정성껏 토기를 본뜬 잔에 술을 담아 바쳤다. 금관총 무덤 앞에 모여든 시민 200여명의 눈길이 폐지마리와 금관모형이 바쳐진 젓상, 타오르는 혼불에 모아졌다.

금관총은 1921년 처음 금관이 나오면서 고대 신라 황금문화의 서막을 열었던 유적이다. 이번 발굴은 그해 9월 주막집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 금관총에 대한 미완의 조사를 94년 만에 마무리한다는 뜻을 지닌다. 당시 조사는 엉망진창이었다. 무덤이 발견된 직후 주민들과 일본인들은 부장품들을 도굴하듯 쓸어가버렸다. 무덤에서 나온 구슬을 아이들이 갖고 놀다 순사의 눈에 띈 것이 유적이 알려진 단서가 됐다. 뒤늦게 이뤄진 총독부와 일본 교토대의 조사도 사흘 만에 마무리됐다. 어떻게 조사가 정리되고, 이후 관리가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 사진, 도면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박물관이 경주 고분의 첫 재조사 대상으로 금관총을 꼽은 것도 보고서를 쓸 수 없을 만큼 당시 조사 자료가 거의 없어, 직접 파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례를 주관한 중부동 청년연합회 이근훈 회장은 “후손으로서 무덤 주인을 모르는 상황이 부끄럽다. 조사에서 왕릉주인을 속히 찾는 게 소망”이라고 했다. 그러나 6월까지 진행될 조사에서 이런 소망이 실현되리란 쉽지 않다. 김대환 학예사는 “초점은 무덤주인이 묻힌 자리, 곧 매장주체부 일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일 낮 경주 노서동 금관총 봉분 앞에서 열린 발굴 고우제 한 장면. 느티나무 고목이 서있는 봉분 앞에서 젓상을 차려놓고 제관들이 절하고 있다.

### 첫 발굴 기록사진조차 없어 당시 유물 나온 곳도 불분명 국립중앙박물관·경주박물관 ‘무덤 일개 확인부터 해야’

21년 조사 당시 금관과 칼 등 유물들이 나온 곳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부장품과 주검이 묻힌 곳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어떤 일개인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2년여 전 국립중앙박물관이 21년 이 무덤 출토품인 동근고리큰칼에 ‘이사지왕’ 명문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면서 명문에 나온 왕이 금관총에 묻힌 인물인지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변수다. 칼은 부장자 머리맡에서 나왔다는 증언이 전해지지만, 이번 조사에서 칼이 나온 위치가 다르게 확인된다면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칼이 나온 위치가 부장자의 실제 소지물로 판단할 만큼 주검 곁에 가깝다면, 그에 따라 ‘이사지왕’이 묻힌 이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 봉분이 대부분 사라지고 기반부 일부만 언덕처럼 남은 금관총 지름은 46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 둘레 호석이 부근의 신라최대 고분인 봉황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경주/글·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